

민 진 전	<h1>BUDDHANARA</h1>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매달 셋째주 토요일 10시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이달의 법구경: -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을 가보 (家寶)처럼 지킨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옹양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003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재가불자 용맹정진 현장

“7일 철야 후 너무 행복해 눈물”

자타불이(自他不二).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임을 발원하는 재가불자들의 용맹정진이 이어지고 있어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공주 마곡사, 해인사 백련암, 완도 신흥사, 강남 봉은사 등 전국 각지의 도량은 불심을 더욱 깊게하는 불자들의 정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마곡사 영산전에서 봉행된 일주일간의 철야 용맹정진 현장을 찾았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가을바람을 헤치고 전국 곳곳에서 달려온 30여명의 불자들이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고 있어 마곡사 영산전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18일부터 24일까지 꼬박 일주일간 밤을 새우며 석가모니불 정근과 함께 3000배 정진을 하는 동참 대중들의 얼굴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닦고 싶어하는 마음과 보살처럼 살겠다는 원력만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태화산을 보듬는 지난 23일 마곡사에 도착한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다. 마지막 가을을 보내는 산사는 쌀쌀함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영산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기(寒氣)는 온데간데 없고, 대중들이 뿜어내는 수행열기로 가득했다.

30대 젊은 불자부터 고회를 넘긴 할머니까지 “석가모니불”을 소리내어 염하면서 나와 이웃 그리고 모든 인연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공덕이 함께하기를 서원했다.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에는 전국에서 30여명이 동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심으로 기도했다.

일주일 용맹정진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것이 수마(睡魔)와의 싸움이다. 또 절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영산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대중들의 얼굴에는 수마나 힘든 기색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모든 대중들의 얼굴에 환희심이 느껴지며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각오가 느껴진다.

대전에서 기도에 동참한 송옥(대위광)씨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얻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많은 업장이 소멸되었는지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철야 기도는 처음인데 너무 행복하며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석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철야기도에 동참한 김용완씨도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 진다”며 “정진하는 사람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 용맹정진은 마곡사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선일.현정.탄공.마가.도철.구전스님 등 사찰의 모든 소임 스님들이 직접 기도에 동참을 하여 불자들을 지도하고 격려했다.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답다는 1000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영산전에서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을 마친 불자들은 회향식후에 명부전에서 선망조상부모님을 위한 제를 올리며, 기도의 공덕을 조상들에게도 돌렸다.

이와 함께 해인사 백련암(감원 원택스님)이 지난 8일 오전 7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개최한 ‘성철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 칠일칠야(七日七夜) 8만 4000배 참회법회’에도 많은 재가자들이 동참했다. 참회법회 기간동안 하루 평균 400~450명이 참가하다보니 법회가 열리는 백련암 중심의 고심원(古心院)도 공간이 부족해 고심원 밖에서, 심지어 고심원 계단 옆에도 재가수행자로 빈틈없이 가득했다.

또 18교구본사 백양사 말사인 완도 신흥사(주지 범일스님)도 31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나라의 평화와 군민화합을 위한 24시간 릴레이기도’를 봉행한다. 신흥사는 3층규모의 교육관 건립을 비롯해 약사전 건립, 대웅전 노후 지붕 교체 등 1차중흥불사 회향을 기념해 지역민과 함께 릴레이 기도, 희망의 등 밝히기 행사, 장보고 대사 관련 학술세미나 등을 열 예정이다.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스님)도 팔관재계 수계대법회 기간인 오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범왕루에서 ‘7일간 용맹정진 참회기도’를 가진다. 팔관재계 수계대법회에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격일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석주스님, 제주 남국선원장 혜국스님,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스님,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 등이 차례로 특별법문을 하며, 14일에는 수계식을 갖는다.



사진설명: ‘마곡사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참가자들이 지난 23일 영산전에서 용맹정진하고 있다.

인과응보의 굴레

업보는 바로 나타나거나 다음 생, 그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도제(都提)의 아들 앵무마납(鸚鵡摩納)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 어떤 인연으로 중생들은 다같이 사람의 몸을 받았으면서도 지위가 높고 낮으며,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겼으며, 목숨이 길고 짧으며, 병이 있고 없으며, 위덕이 있고 없으며, 비천한 집과 존귀한 집에서 태어나며, 재물이 많고 적으며 총명하고 어리석게 되나이까?”

“그것은 중생들이 자기가 행한 업 때문이니라. 지은 업에 따라 값음을 받으며 업을 인연하여 높고 낮음이 생기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수명이 짧은 것은 다른 생명에게 모질게 굴거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마셨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병이 많은 것은 주먹이나 막대기로 다른 생명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니라. 얼굴이 못생긴 것은 성질이 급하고, 번민이 많아 화를 잘 내고, 걱정과 질투가 많아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기 때문이니라. 위덕이 없는 것은 남이 존경을 받으면 질투하며, 남이 좋은 물건을 가진 것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자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비천한 집에 태어나는 것은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니라.. 가난하고 재물이 적은 것은 빈궁하고 고독한 사람, 수행자나 거지에게 음식이나 옷,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보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자주 지혜로운 이를 찾아가 참다운 진리를 배우지 않고, 죄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묻지 않으며, 검고 흰 것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 중아함 44 권 170 경 <앵무경(鸚鵡經)> -

인과응보에 의한 윤회의 반복은 불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다. 만약 우리의 삶에 인과응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땡땡거리고 잘 살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러나 세상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한때 잘나가던 사람이 초췌한 얼굴로 영락하고, 지지리도 어렵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별떡 일어서는 모습은 인과가 역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말은 누구도 인과와 법칙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전은 그런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가끔은 인과응보가 현실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선인악과(善因惡果) 악인선과(惡因善果)도 없지 않다.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숙세의 업이 현재에 나타나는 것이지 인과와 법칙이 무너졌기 때문은 아니다. 업은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順現業), 다음 생(順生業)에, 그 다음 생(順次業)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삼시업(三時業)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업이란 내가 마음먹고 행동한 결과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의해 미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과응보는 기계적 결정론이 아니라 의지적 행위론으로 이해해야 한다. 개과천선만 하면 전혀 다른 과보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중생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쁜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며 산다. 그런 악업을 짓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마음을 바꿔 선업을 짓는데 힘써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 부처님은 이 경에서 경고하고 있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불교용어 공부: 나무(南無); 귀의, 공경, 귀례의 의미, 일심으로 삼보에 귀의함

일반에 널리 알려진 불교용어 가운데 그 뜻이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크게 훼손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는 일상생활은 물론 국어사전에서조차 그 뜻이 잘못 표기된 경우도 있다. 사전의 잘못된 설명은 다른 인쇄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며, 빠른 시간 안에 고쳐져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다.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뜻을 가진 ‘나무아미타불’에 대해 보통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어사전에는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설명과 함께, ‘공들여 해 놓은 일이 헛일이 됨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사전은 친절하게도 그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십 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나 성과가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말이다. ‘나무아미타불’의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이다.

나무는 산스크리트어로는 ‘namas’로 예배(禮拜)를 의미하는 명사다. 중국에서는 나마(那摩), 나막(那莫 또는

南莫), 나막실(娜莫悉), 납막(納莫), 납모(納慕), 낭마(麻)등 여러 가지로 음사하고 있으며, 그 뜻은 경례, 공경, 귀경, 귀례, 귀명, 귀의 등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함을 뜻한다.

따라서 나무 뒤에 아미타불을 붙이면,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이 된다. 나무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한다는 뜻이다. 나무는 보통 엮을 때 불.보살님의 명호나 경전의 이름 앞에 붙이며, 귀의의 뜻을 의미한다.

흔히 ‘나무아미타불’은 육자명호(六字名號)라고 한다. 여섯 글자로 이루어졌으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생각만 해도 구원을 받아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해, 타력염불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때 나무는 일심(一心)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구원(久遠)을 바라는 원(願)이고, 아미타불은 구원을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행(行)을 뜻하므로 나무아미타불은 원행(願行)이 구축된 여섯 글자라는 뜻으로 육자명호라한다.

법회소식 NEWS

- 불국사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국사 창건이래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비치된 도서들은 강석주 큰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신도님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것 들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몇가지 주의 사항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일회 대출 서적은 2 권까지이고 대출기간은 1 달입니다. 먼저 빌리신 책을 도서관에 돌려 주셔야만 다른 책을 대출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서를 대출 받으실수 있으신 분은 불국사에 신도카드가 있는분에 한합니다. 대출받으신 책들은 불국사의 재산입니다. 여러 신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보는 책이니 만큼 필히 깨끗하고 소중하게 다뤄 주십시오. 책에 낙서를 하거나 책을 찢거나, 물에 적시거나, 책을 접어서 보는 행위등은 삼가해 주십시오. 심한 경우는 대출 금지와 동시에 항공료를 포함한 변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책은 불국사와 신도님들의 재산이고 얼굴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 기뻐해 주십시오. 백송 오영주 거사님께서 10 월 28 일 뉴욕에서 변호사 선서를 무사히 마치고 변호사가 되셨고 무량화 김봉순 보살님께서서는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일등을 하셨다는 기쁜소식입니다.
-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께서 11 월 말에 부처님 오신날에 모실 탄생불과 좌대 관계로 한국에 일시 귀국 합니다. 그러므로 11 월 넷째주 참회기도 법회는 회장 홍법 문정모 거사님과 총무 보광 이진욱 거사님을 비롯해서 신도님들이 합심해서 법회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11 월 다섯째주 특별 야외법회는 10 월 첫째주에 가진 관계로 쉽니다.
- 2004 년 달력과 법당 카페트 시주를 받습니다. 동참하실 뜻이 계신 불자님들은 미국은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 (314)993-0185)로 연락 해주고, 한국은 불국회 (불국사 후원회: 후원회 총무 청정행 정혜주 보살님 (02) 375-5812)로 연락 주십시오.
-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국회에서는 올해에는 서울 칠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로원인 안양원으로 김장 담아주기 불사를 하러 11 월경에 봉사하러 갑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동참하실 뜻이 계신분은 후원회로 연락 주십시오.
- 불국사 카페트 시주 동참자: 홍법 문정모, 청운화 불자님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주의 공덕으로 소원성취 하시고 업장 소멸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